

제3차
아시아
연대회의



- 왜 민간 위로금을 반대하는가
- 무엇을 할 것인가
- '보안' 해프닝
- 결의문

아몰지 않은 전쟁상처
'군위안부' 미해결 50년

컴퓨터일러스트레이션 강우현

식품 유통기한 자율화 - 우리의 목소리

4면

김영삼 대통령의
이화여대 졸업식 연설

'세계화 시대의 여성'

5면

행정구역 개편론 바라보는 여성계의 입장

6면

한국의 여성정책 권영자 전 정무2장관

7면

'95 지자체 선거
여성단체 정치교육 수료생들 출사표 대열에

7면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문화 워크샵 / 본사주최 유방암 자가진단법 문제 있다

해외여성

정태선

박호신

여성신문

제315호 1995년 3월 10일 / 1부 1,000원
매주 금요일 발행 여성신문사

1988. 4. 30 등록번호 다-531호/1989. 3. 30 제3종우편물 (가)급인가/발행인·편집인 이계경/발행처 (주)여성신문사 (우)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57-33 인쇄인·김성식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대표전화 (02)565-0071~6 / 사업국 (02)568-3358/판매국 (정기구독신청) (02)554-6087 / FAX (02)563-9711

전과의 왕 동아전과

좋은 책 만들기 반세기
동아출판사

화제의 기업인 (주)한국플라



이청승
사장
13면



대통령 유림순방 수행 디자이너
이영희 씨
"한복의 세계화
자신 있다" 14면



정부기관 최초의
탁아소 설치
국립보건원
이강추 원장 8면

산후비만 한방치료

김길수

컴퓨터 이야기

이명신

놀이속의 글쓰기

정태선

당신의 경쟁력

박호신

제3차 아시아연대회의의 2박3일

전후 50년, 일본은 뒤틀린 역사를 바로 잡으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아시아국 한 목소리로 촉구, 북한 '발제문 참가'

'전후 50년, 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가'를 주제로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진행된 제3차 아시아연대회의는 27일 북한이 발제문을 보내오으로써 대만, 일본, 필리핀, 한국 등 5개국이 연대하여 전후 50주년을 맞는 올해 반드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모아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대만 2명, 필리핀 3명, 일본 53명을 포함, 모두 2백여 명이 참가한 이번 연대회의는 27일 각국의 대표가 한송이씩 헌화한 제단앞에서 무용가 김경란 씨의 일본군 위안부들의 넋을 위로하는 살풀이로 개회를 알린 뒤 바로 발제와 열린 토론으로 이어졌다.

27일 권희순(정대협 아시아 연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왜 민간위로금을 반대하는가?'라는 주제의 발표에서는 이시카와 이즈코(시인, 일본 성과 친황제를 생각하는 회 회원), 양영지(제일교포, 우리여성네트워크 회원), 벨리아 산초(필리핀 일본군 위안부 대책위원회 대표), 슈 병 사유(대만여성연구학회), 김경희(정대협 총무) 등의 발제와 전 일본군 위안부 줄리아 포라스(필리핀) 할머니, 피메이 창(대만) 할머니, 김순덕 할머니의 증언이 이어졌다.

아이코 카터(그리스도교 부인교동회)의 사회로 진행된 둘째날 회의의 주제는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벨리아 산초(필리핀), 쉐이첸(대만부인위원회), 김영희



"일본은 민간기금만 철회하라" 아시아연대회의의 둘째날 증언하는 김순덕할머니.

사진·민영기 기자

일정부는 민간위로금 철회하고 시효부적용 조약 가입할 것 등 포함한 결의문 발표

(제일교포, 우리여성네트워크), 쓰부라야 코코(일본 여성과 인권을 위한 구니타치시 민모임), 지은희(정대협 기획위원장) 등의 발제가 이어졌고 종합토론을 거쳐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아시아연대회의는 결의문을 통해 "우리들, 회의에 참

가한 모든 피해자와 대표들은 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위로금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부도덕하고 기만적인 행위로 이를 규탄한다"고 밝히고 일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친황제 파시즘과 군국적 국가권력

에 의해 저질러진 전쟁범죄임을 인정할 것 ▲아시아 태평양 전 지역에서 실태조사와 피해자 추수, 국가별 명부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3차 보고서를 제출할 것 ▲민간위로금안을 철회하고 피해자 배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 ▲국제법을 완전히

준수하고 전쟁범죄와 중대한 인권침해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시효부적용 조약'에 가입할 것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에 응할 것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역사적 사실에 대해 올바른 자각을 갖도록 과거 침략역사와 평화인권 사상에 대한 2세 및 시민 교육을 철저히 할 것 등을 요

구했다. 이와 아울러 연대회의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오는 5월 8일부터 시작되는 UN 인권위원회 특별조사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일정부가 국제법률가협회 등의 권고안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펴기로 했다. 북경여성대회회를 통해서 세계에 일본의 비인도적 범죄를 알리며 세계노동기구(ILO)가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 금지' 조항 위반을 들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세계각국의 노동운동단체의 참여를 권장키로 했다.

연대회의의 참가자들은 마지막날인 3월 1일 탑골공원을 방문하고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 155차 정대협수요집회시위에 참여함으로써 제3차 아시아연대회의의 막을 내렸다.

한편 25일까지 참가의사를 분명히 밝혔던 북측의 불참동맹으로 긴장했던 연대회의의 준비관계자들은 27일 북측 최금춘(중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보상대책위원회 상무위원) 명의로 보내온 발제문을 받고 아쉬움을 표했다. 북측은 발제문을 통해 "전후 50년을 맞은 올해 반드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과 북의 위안부문제 관련 단체들이 연대해 '(가칭)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위원회' 등의 형태를 가진 공동의 투쟁조직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손정미 기자>

인터뷰 재일한국민주여성회 방청자 씨

"남북·해외 여성, 하나로 뭉쳐야죠"

난 92년 1차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쓰러린 경험을 갖고 있다. 90년 평양에서 열린 범민족대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서울에 첫발을 내린 26일, 임진각을 찾은 방씨는 조국방문이 믿기지 않아 잠까지 설쳤으며 꿈만 같다고 전했다.

"지난 90년 정대협의 대표가 일본을 방문해 우리의 할머니, 어머니가 당한 고통을 전했다. 그때 피가 기쁘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분단 50년을 맞이하는 이 역사적인 해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남북, 해외의 동포여성들의 하나된 힘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방씨의 마음은 썩 개운치가 못하다. 지난해부터 전후보상문제에 대한 일본내의 관심이 눈에 띄게 식어가고 있고 일본에 거주하는 송신도 할머니를 지원하는 제 판투쟁에도 참가하는 이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방씨는 또 최근 국회차원에서 '전쟁범죄 사죄결의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자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민간기금안'을 4. 5월경 처리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어 위기의식마저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 속에서도 '태평양전쟁을 침략전쟁으로 굳이 규정할 필요가 있는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대한 서명감을 세삼 느끼고 있다고 방씨는 전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동정의 구하는 차원에서 벌이는 보상운동이 아닙니다. 다시는 이러한 슬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도 국가의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몸은 멀어져 있지만 언제나 조국을 보며 '위로금은 거부한다'고 외치는 할머니들, 정대협과 끝까지 싸워나갈 겁니다."

재일 한국 민주여성회는 1986년 조국의 민주화와 평화적인 통일, 반전, 반핵운동을 벌이는 제일여성단체로 오는 8월에는 독일의 바이제커를 초청해 전후처리문제에 대한 강연회를 가질 계획이다.

아시아 연날리기 대회는요?

아마 통일원에서 아시아연대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치안과 참가자들의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을 두고 대우부에서 모르고 있다거나 진화를 한 모양이었다.

행사를 대강 설명하고 진화를 끊은 후 정대협 사무실은 한동안 사무실이 떠나라 웃음바다가 되고 말았다. '아시아연날리기대회라니!' 그 착상도 기발했지만 2년만에 남북의 민간인들이 만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연대

내무부 직원의 무지에 정대협 관계자들 이연실색

자는 '북한에서 사람들이 온다는데 왜 오는가'며 다짜고짜 물어왔다.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정대협 관계자가 자신을 소개한 후 무슨 일 때문이냐고 확인을 요구하자 내무부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상대방은 통일원에서 팩스(fax)를 한창 받았는데 확인해 불러고 한다는 것이었다.

를 벌인다는 보도가 몇일째 커다란 뉴스가 되고 있는데 요즘 공무원들 신문도 안보고 뉴스도 안보는가'며 항당했다. 더구나 '귀찮은 일 하나 늘었다'는 식의 짜증스러운 태도에 정대협 관계자는 "공무원의 무지와 무사안일주의가 이정도인 줄은 몰랐다"며 이연실색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가 주최한 제3차 아시아연대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처음으로 모국을 찾은 방청자(40. 재일한국민주여성회 사무국장) 씨는 지